

TV 9월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50 굿모닝 채널A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7 50 박중진 '쾌도남미'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친사의 선택>	05 KBC 뉴스지금 3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8 4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25 아침야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활속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내인생의 대비)
9 50 대선예비후보 초청 관훈토론회 (민주통합당 순회)	30 KBS 뉴스	00 TV 소설 <사랑이 사랑이> 40 여유만만	30 MBC 뉴스 40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40 미스A(재) 50 채널 A 뉴스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산너머 남촌에는(재)	50 지구촌 뉴스		40 SBS 뉴스
11 40 구름방 40 여자 그날자 스페셜	55 바른말 고운말	10 KBS포츠 타임 20 사랑의 가족 50 월화드라마 <빅>(재)	00 MBC 여성토론 <워드>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00 SBS 12뉴스 30 KBC 열린토론회(재)
1 50 뉴스쇼 A타임 1~2부	00 KBS 걸작선 (로맨스타운)(재)		00 통일전망대 40 지구촌 리포터(재)	30 엄마랑 아빠랑 지구한바퀴
2 50 불멸의 국가대표(재)	00 KBS 뉴스 10 발 통(재)	00 비타민(재)	15 시후에이션 휴먼다큐 그날 스페셜	00 SBS 뉴스 1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3 50 박중진 '쾌도남미'	05 콘서트 필 2(재) 55 바른말 고운말(재)	00 영상앨범 산스페셜(재) 30 KBS 뉴스타임 35 메타제트(재)	05 MBC 네트워크 특선 <2012 산골음악회>	10 우리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4 50 박중진 '쾌도남미'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 네트워크 특선 (갈매기 도시-부산)	00 부부와 숲속 친구들(재) 30 TV유치원	00 뽀뽀보 아이즈 30 키즈 CSI 과학수시대	00 동화속 과학탐험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스페셜
5 00 요리비전 30 관찰 카메라 24시간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알록달록 종이마을 30 맛있는 퀴즈쇼! 행복의 식탁	00 브리모 마이 라이프 <세상을 충추게 하라 안무가 정진석>	00 SBS 뉴스퍼레이드 30 생방송 투데이 1~2부
6 40 이영돈PD의 막걸리 X파일(재)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우기	45 일일시트콤 <신나게 놀아>	00 MBC 뉴스 10 생방송 월화수목 50 앙코르 특집 다큐 <한국의 맛 6부-비밀법>	20 일일드라마 <그레도당신>
7 50 월화 미니시리즈 <굿바이 마블>	25 일일연속극 <별도 달도 따줄게>	20 스타 인생극장 50 위기탈출 넘버원	15 일일연속극 <그대없인 못살아> 55 SBS 스포츠 뉴스	00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5 SBS 스포츠 뉴스 50 생활의 달인
8 00 뉴스A	00 KBS 뉴스9	55 월화드라마 <빅>	45 MBC 스포츠 뉴스 55 MBC 월화특별기획 <글든 타임>	55 월화드라마 <추적자>
9 00 이영돈PD, 논리로 쫓다	00 KBS 뉴스라인 40 베이스볼 매거진(야호)	05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특집 방송 오피스 풀타임 개정 추하쇼	15 힐링캠프 기쁜지 아니한가
10 10 박중진 '쾌도남미' (1:10 굿바이 마블(재))	25 KBS 뉴스 35 KBS 특선 (인류진화의 열쇠 제1편 백)	25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MBC 뉴스24 35 스포츠 특선	25 나이트라인 45 강성영행 강이역스페셜

“정록, 철없는 내 모습 닮아”

카리스마 이종혁, SBS '신사의 품격'서 완벽 변신



〈이종혁〉

“지도 철이 없긴 해요. 아내가 늘 아들 셋을 키우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정록이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다 제 어디선가 나온 거죠.”

이종혁(38)은 SBS '신사의 품격'에서 철부지 바람둥이지만 유머와 애교가 넘쳐 결혼 미뤄할 수 없는 '정록'역할을 맡아 확실하게 됐다.

“인기를 실감하는 것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기분이 좋은 정도입니다. '아 네가 그럴 줄 몰랐다'는 반응을 들으면 짜릿짜릿하긴 해요. 늘 새로운 모습,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 같아 좋습니까.”

'추노'의 활황은 커녕, '말죽거리 잔혹사'의 선도부장 증훈은 오간 데가 없다. 피도 눈물도 없는 카리스마는 흔적도 없고 대신 '여보 밤 먹었지요?' 류의 혀짤아는 소리를 내고 휴대전화에는 은밀한 관계의 여성이 빼곡히 저장돼 있으며 온갖 구박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철부지 한랑 정록이 있다.

그의 완벽한 변신에 주말 안방극장 시청자들은 '킬링'거리며 즐거워하고 있다.

“저의 다른 모습을 몰랐던 분들이 '우와~!'라고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기분이 참 좋아요. 시청자도, 제작 관계자들도 이종혁은 연기력의 폭이 넓은 연기자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정록이를 포함해서 어떤 역할을 맡아도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하는 것이지 저와 완전히 다른 사람을 할 수는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정록에게 이종혁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습니다.”

그는 정록에 대해 “단순하고 철없고 늘 기분이 업 데 있는 인물”이라며 “순간순간 명철한 것 같기도 하지만 임기응변이 뛰어나고 어떤 상황이면 즉각 즉각 반응한다”며 웃었다.

그는 “나도 정록이가 부러운 적이 많다. 네 남자 중 집도, 차도 가장 좋고 사장님 소리 들으며 카페와 바도 경영하고 있으니 세상 편한 한랑 아나기”라며 웃었다.

가장 부러운 것은 아마도 네 친구의 우정일 것이다.

“그 정도 사회적 위치와 경력력을 갖추고 오랜 시간 누구 하나 변하지 않고 교류하면서 산다는 게 어찌 보면 판타지죠. 같이 성장하면서 같은 취미를 공유하며 10대에서 40대가 된 네 남자의 우정이 부럽죠.”

이종혁은 “요즘 야외 촬영을 나가면 우리 4명의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장동건만 인기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 넷이 함께 있어야 최고구나'를 알게 됐다”고 했다.

극 중에서처럼 실제로도 40대에 접어들

다른 세 배우와 달리 이종혁은 아직 30대다. 또 10살, 6살 두 자녀를 둔 서른여덟살의 가정적인 남편이다.

오랜 무명 기간을 거쳤고 이제 좀 뜨냐 하면 상승곡선이 꺾이곤 했던 게 수차례. 그래서인지 이종혁은 쉽게 흥분하지 않는다. 철부지 마흔살 정록과 비교하면 그가 한참 '어린'이다.

“욕심을 내 목표를 향해 달려가진 않아요. 지금까지 솔하게 새옹지마의 상황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내게 어떤 기회나 일이 주어지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연습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9일 (음 5월 20일 辛未)

	36년생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라. 48년생 감정이 몹시 격해질 수 있다. 60년생 건설적인 비판 정신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다. 72년생 잘못 전달된 것일 수도 있다. 84년생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13, 33		42년생 유색하거나 왜곡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식하라. 54년생 투명하게 드러나서 모든 금급증이 해소되겠다. 66년생 일선상에 있어서 영광이 비추어 오도다. 78년생 망설이지 말고 실행해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38, 58
	37년생 여러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서 하루가간다. 49년생 일방적인 조치는 반발심을 유발할 수 있다. 61년생 넓고 원만한 마음씨를 보이자. 73년생 좋은 일은 널리 전하라. 85년생 말쑥한 차림새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57, 03		43년생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급한 일이 생기겠다. 55년생 문제점이 보이거든 미루지 말고 즉시 개선하라. 67년생 수시로 변할 수 있으니 절대적이라는 생각을 배제하라. 79년생 마음 똑 놓고 있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90, 08
	38년생 참되고 꾸밈없이 대한다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50년생 경험 있는 이가 남을 인도할 수 있느니라. 62년생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해결되겠다. 74년생 귀한 손님을 맞아서 대접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5, 43		44년생 신나는 것보다는 알차고 발전적인 것이 더 좋다. 56년생 농담을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68년생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공중 질서에 소홀하지 말라. 80년생 사소한 잘못은 너그럽게 용서해 줘도 된다. 행운의 숫자 : 59, 19
	39년생 오랜 숙원 사업이 이루어져 후련하겠다. 51년생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자. 63년생 말 많은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75년생 재력을 겸비한다면 크게 복되리라. 행운의 숫자 : 25, 50		45년생 빈틈없이 처리해야 안정되느니라. 57년생 인간미를 보인다면 상대도 마음의 문을 열 것이다. 69년생 똑같은 것이라도 용도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다. 81년생 막후에서 조용히 견제하려는 세력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30, 39
	40년생 서공이 비치기 시작한다. 52년생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면 어떤 관계가 유지될 것이다. 64년생 다양성의 추구는 생산성과 안정성에 기여하라. 76년생 재능보다는 수단에 따라서 일의 성과가 좌우되겠다. 행운의 숫자 : 81, 15		46년생 자신만의 특별한 기량을 발휘하는 것이 좋다. 58년생 가치관이 있어서 혼란이 올 수다. 70년생 꼼꼼하게 따져보고 치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82년생 진심을 전달하는 데는 말보다 글이 더 효과적이다. 행운의 숫자 : 47, 26
	41년생 망명대에 놓인 일일연속극의 형상이되다. 53년생 문제 제기를 할 일이 있었으니 타당성 있는 근거부터 확보하라. 65년생 원인을 파악하고 나면 다소 안심이 될 것이다. 77년생 은근히 뜻을 내비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78, 54		47년생 자신의 뜻을 확실하게 표명해야 할 때다. 59년생 불굴의 투지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71년생 자신감 없이 행하면 서투른 결과가 된다. 83년생 스타일을 약간만 바꿔도 효과를 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4, 8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행영!” ☎010-9790-8237

EBS			
06:00 헬스투데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00 천하무적 한자 900	19:10 어린 왕자(재)
06:30 아름다운 소원	(한복선의 깊은 품이 느껴지는 시골	15:10 특수요원 오소	19:35 달라졌어요
07:00 어린왕자	법상-공치우겨지침과 각두기)	15:35 쿠라기 상사여행	20:25 지식재능
07:30 아기중풍 버디	11:20 부모	16:00 땀동생 유치원 1~3(재)	20:30 EBS 뉴스
07:45 로보가 풀리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촌이 2부)	16:30 신글빙글 피치(재)	20:50 세계테마기행
08:00 똥동양 유치원 1~3	12:00 EBS 정오 뉴스	16:45 숲속 친구 파파올리(재)	21:30 한국기행
08:30 부릉부릉 브루미즈	12:10 역사특강	17:00 방귀대장 뽕뽕이(재)	21:50 특집 다큐멘터리
08:45 숲속 친구 파파올리	13:00 초등1년 EBS 여름방학생활	17:10 뽀로로와 노래행이(재)	<동행의 행복,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
09:00 방귀대장 뽕뽕이	13:20 초등3년 EBS 여름방학생활	17:15 부릉부릉 브루미즈(재)	22:40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09:10 뽀로로와 노래행이	13:40 초등5년 EBS 여름방학생활	17:30 뛰뛰빵빵 울리(재)	23:10 허나쁜인 지구
09:15 뛰뛰빵빵 울리	14:00 지식재능 e	17:45 로보가 풀리(재)	24:00 지식재능
09:30 뛰뛰빵빵 울리	14:10 EBS 다큐프라임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 1~4	24:05 시네마 중국
09:45 신글빙글 피치	(아버지의 성 1부- 부성 본능의 불이 켜지다)	18:50 외와외를 친구들	24:35 역사특강
10:00 달라졌어요		19:00 배꼽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0:00 2012 기보과 특별한 (정승재의 고1수학)(상)	10:50 (송점석의 생물II)	07:00 2012년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강좌	15:20 한자교육 드라마 <어린이 손재범>
00:50 (이남승의 지리)	11:40 (송원희의 지구과학II)	07:30 EBSe 생활영어	15:50 사이언스 드라마 <미러를 보는 소년>
01:40 (영문법 즐겨찾기)	12:30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	08:00 배경 TEST 시험 대비 강좌	16:20 초등 1년 EBS 여름방학생활
02:30 2012 내신 6급 <이미지의 수학>(상)	13:00 2012수능완성	08:30 한국사능력검정 시험대비강좌	16:40 초등 3년 EBS 여름방학생활
03:20 2012 포스 <과장원의 수학 I>	14:00 (박철의 정치)	09:10 EBS 여름방학특강 중 1 <영어>	17:00 초등 5년 EBS 여름방학생활
04:10 (김규호의 미적분과 통계I)	15:00 (민병권의 세계지리)	09:50 <수학>	17:20 초등개념잡기 <수학>
05:00 (이은주의 적분과 통계)	16:00 (정진선의 물리 I)	10:30 EBS 여름방학특강 중 2 <영어>	18:00 중학개념 끝장내기 <과학>
05:50 (김경환의 기하와 벡터)	17:00 (김성호의 화학 I)	11:10 <수학>	18:40 (국어)
06:40 2012 탐스런 <강릉군의 한국지리>	18:00 <정현경의 미적분과 통계기본>	11:50 EBS 여름방학특강 중 3 <영어>	19:20 <영어>
07:30 (한중철의 생명과학 I)	19:00 (이재현의 기하와 벡터)	12:30 <수학>	20:00 <수학>
08:20 2012 기보과 특별(재)	20:00 (윤해정의 언어)	13:10 이이גי 한국사	20:40 여름방학 특강 중 1 <영어>(재)
09:10 (정승재의 고1수학)(상)	21:00 <외국어 영역>	13:50 이이גי 수학사	21:20 여름방학 특강 중 2 <수학>(재)
09:30 <이남승의 사회>	22:00 <최태성의 한국근현대사>	14:30 EBS 클럽뱅크	22:00 여름방학 특강 중 2 <수학>(재)
10:00 2012수능특강 <강릉군의 한국지리>	23:00 EBS 초대서	14:50 한자지도 도론편	22:40 여름방학 특강 중 3 <영어>(재)
		15:10 생활이 생생!	23:20 여름방학 특강 중 1 <수학>(재)

굿모닝 잉글리쉬

It's only a 15-minute walk
걸어서 15분 밖에 안걸렸어요

A : How did you get to the train station?
B : I walked. How did you get there?
A : I drove. How long does it take you to get there on foot?
B : It's only a 15-minute walk.

A : 기차역까지 어떻게 가셨나요?
B : 걸었죠. 당신은 어떻게 가셨는데요?
A : 차를 몰고 갔죠. 걸어서 얼마나 걸리던가요?
B : 걸어서 15분 밖에 안걸렸어요.

* get to ~ = ~에 도착하다
* on foot = 걸어서

<동아 외국어학원>
www.donga.tv ☎ 222-6253

한자이야기

實事求是(실사구시)
열매 실, 일 사, 구할 구, 옳을 시

실사(實事)는 진실된 사실, 구시(求是)는 올바른 것을 구한다는 뜻이다. 즉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는 것과 같은 실험과 연구를 거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을 통해 정확한 판단, 정확한 해답을 얻는 것이 실사구시이다. '후한서'의 '하간현왕덕전'에 나오는 "학문을 닦아 옛것을 좋아하며, 일을 실사구시하게 하여 옳은 것을 찾는다.(修學好古 實事求是)"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실사구시는 청나라 초기에 고증학을 표방하는 학자들이 사실에 맞지 않은 이론과 실제와 동떨어진 논리만을 일삼는 송명리학을 배격하여 내세운 표어이다. 이 실사구시운동의 중심인물인 대진은 "학자는 마땅히 남의 것으로 자신을 가리지 말고, 내 것으로 남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실사구시는 우리의 실생활을 유익하게 하는 실학이란 학파를 낳게 되었다.

[출전] <후한서(後漢書)>의 <하간현왕덕전(河間獻王德傳)>

<대능교육>
www.daeneungedu.com ☎ 02-2634-2007

니하오 풍구위

省了棍子, 慣了孩子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

Spare the rod, spoil the child.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 중국어로는 '省了棍子, 慣了孩子 shěngle gùnz i, guànle hái zi'로 번역이 되어 있네요.

'省'에는 '아끼다'는 뜻이 있고, 습관에 쓰인 '慣'에는 '습관'으로 '자라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바르게 키우기 위해 매를 든다'라는 뜻의 속담이 의미하는 바는 아이는 두들겨 패서 길러야 한다는 의미보다는 관심을 갖고 돌봐야 한다는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리틀치아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

오하오우 니혼고

一人旅ですか。
나 홀로 여행이요?

A : 最近、なんかだるい、やる気も出ないんですけど。
B : そんな時は一人で旅に出るのもいいと思いますよ。
A : あ、一人旅ですか。
汽車の旅だと一度はしてみたいなって、ずっと思ってたけどね。
B : いいかも知れませんね。走る汽車の中で駅弁を食べながら景色を眺めるのもいいですね。

A : 요즘 좀 뭐가 나른하기도 하고, 의욕도 안 생기네요.
B : 그럴 때는 혼자서 여행을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A : 아, 나 홀로 여행이요? 기차여행이란 한 번은 해보고 싶다고 줄곧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B : 좋지도도 모르겠네요. 달리는 기차 안에서 역 도시락을 먹으면서 경치를 바라보는 것도 좋지요.

<아스카일본어학원 강사 남궁경일>
http://www.kjasuka.co.kr ☎ 232-1503